

‘디자인 평가, 내용물과 포장재질 따라줘야’

‘오베론’ 디자인, 아시아스타상 영예

길 양 옆으로 늘어진 가로수 사이로 늦가을 냄새가 가득하다. 갖가지 나무들이 바랜 빛으로 쓸쓸이 서있는가 했더니 이젠 나뭇잎사귀도 몇 개 달려 있지 않다. 문득 겨울이 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잠기게 한다. 도시는 온통 자기색을 잃어 버린 채 한쪽의 서정적인 수채화를 연상케 하고 있다.

포장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현대사회는 제품의 질 만큼이나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패키지 디자인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편이지만 제품의 전체적인 질이 떨어져 디자인이 제대로 빛을 보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아시아 패키지 디자인 대회에서 당당히 우리나라 디자인의 우수성을 증명한 젊은이가 있다.

(주)피어리스 개발부 개발과의 황상구씨는 회사에 입사한지 2년8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착각할 만큼 어떤 외모를 소유한 신세대 디자이너다. 순수한 외모 만큼이나 그의 일의 세계도 그러리라는 기대 속에 짧은 만남을 가졌다.

“저희 피어리스 개발부는 용기를 개발하는 부서로 디자인팀, 설계팀, 기술소재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디자인팀은 말 그대로 제품디자인을, 설계팀은 소비자가 제품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대량생산이 용이하도록 연구하며, 기술소재팀은 가장 적합한 재질을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할

만한 것은 개발부 내에 용기포장에 필요한 모든 파트가 있어 서로 협력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보다 나은 제품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발부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출하되기까지 그 책임이 따르며 소비자의 반응과 제품의 문제점을 체크하는 일까지도 모두 자신들의 몫이라고 털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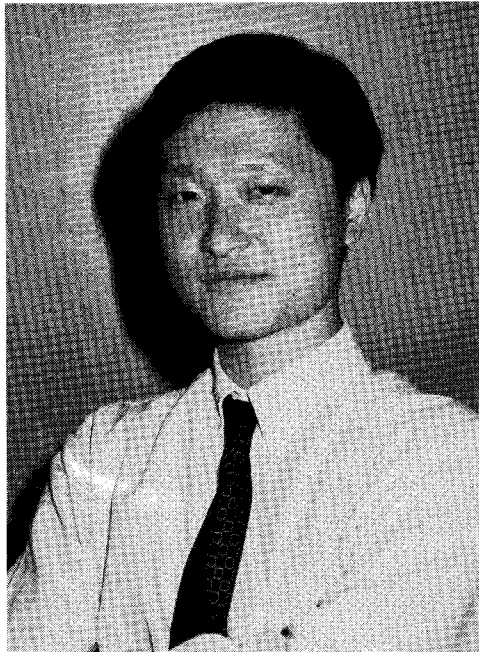
공업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사회에 나아가 제품을 디자인 하는 것이 꿈이었으며 현재 화장품 용기 디자인을 하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화장품디자인은 일반 공업제품과 달라 미적인 부분이 특히 강조되는 제품으로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그래서 공예나 염색, 조소를 전공한 디자이너들이 화장품 분야에는 꽤 있다고 한다.

“순수미술에 대한 욕심요? 물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나 기업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산업사회 발전을 위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겐 큰 자부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평소 소극적인 성격과 달리 금세 자신감이 넘친다.

“디자이너의 세계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회사에서 신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모의 디자인제품이 경쟁을 벌여 최종제품이 선정되기까지 많은 경쟁이 뒤따릅니다. 자신이 기획한 디자인을 제품화시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한 제품만이 선택되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 순간을 위해 늘 연구합니다.”

▶
 순수미술에 대한 욕심도
 아주 없진 않지만
 상품디자인을 통해 산업사회 발전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데에
 자부심을 갖는다는
 피어리스 개발부의 디자이너
 황상구씨.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경쟁은 있기 마련이고 늘 승자와 패자는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진지해지는 그의 표정에서 왠지 모를 씩씩함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

패키지 디자이너들의 모임이나 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동안 무심했지만 우리나라 패키지 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디자이너 개인의 발전을 위해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은 제 개인적으로나 회사로 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희 피어리스 색조화장품 용기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주최하는 '92우수포장상품선정제'에서 우수포장 상품으로 이미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2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스타 포장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아시아스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팀 모두의 노력에서 얻어낸 결과죠.

오베론 메이크업 디자인은 '우주에서 찬란히 빛나는 은하수'를 상징하는 브랜드명 '오베론'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미래적 감각과 우리나라의 전통미를 살린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장품 용기 디자인은 우리나라가 선진외국에 결코 떨어진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용물의

질이나 포장재질면에서 떨어져 상품전체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됩니다."라며 아울러 패키지 디자이너들도 소비자와 친숙한 제품개발에 노력하고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유행을 창조해 나가는 주체가 바로 디자이너이니 만큼 우리나라도 디자이너가 소비자를 선도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제 서른 살인 그의 미래는 아직 미지수이다. 술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 술에 취할 줄도 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여행을 떠날기도 하고 혼자 사색하기를 즐기는 그는 예술가의 끼를 다분히 소유하고 있는 그림쟁이다.

공사중으로 유난히 막혔던 서대문 길에서 한 참동안 피어리스 건물을 바라보았다. '아시아스타상 수상'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선하 기자